

당선작 소설부문 | 김만성

## 보스를 아십니까

후계자 면접을 보러왔다는 젊은이가 구두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추위 때문인지 젊은이의 뺨이 유난히 붉었다. 나는 손짓으로 자리를 권하고는 찬찬히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젊은이가 다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면접 전에 자네 구두를 닦아주려는데 괜찮잖나?”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젊은이는 쭈뼛거리다가 구두를 벗어 건네주었다. 버클로 포인트를 준 슬립은 스타일이었다. 끈이 있는 옥스퍼드에 비해 캐주얼 하지만 정장에도 어울리는 구두였다. 대개 손님들의 구두에서는 콤팩한 발냄새가 나는데 그의 구두에서는 아로마 향이 풍겼다. 이질적인 향 때문인지 재채기가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구두를 뒤집어보니 굽 좌우가 비슷하게 닳아있다. 반듯한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이 구나 싶었다.

나는 닦기통 위에 구두를 올리고 잠깐 숨을 골랐다. 광복초 조각을 팽팡하게 던져 검지와 중지 사이에 감고 구두약을 듬뿍 묻혀 쓱쓱 닦아내었다. 약이 가죽에 골고루 퍼지게 솔로 여러 번 문질렀다. 약을 먹은 구두코가 광을 잃고 흐릿해졌다. 나는 한 짝을 젊은이 발 앞에 놓았다. 버클이 달각 소리를 냈다. 다른 짝도 똑같이 약을 묻힌 후 나란히 놓았다. 젊은이는 광택이 사라진 구두를 바라보며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약이 스며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너무 오래두면 굳어버리고, 너무 짧으면 약이 가죽에 스며들지 못해서 구두 광이 이틀을 못 넘어.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

젊은이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발 앞에 놓인 구두를 다시 보았다. 세 평 남짓한 구두방 안이 답답한지간간 심호흡을 했다. 찬바람을 막으려 문을 닫아놓은 구두방 안은 아닌 게 아니라 휘발유와 구두약 냄새가 뒤섞여 탁하기 짝이 없었다.

문을 약간 열었다. 열린 문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마른 광목을 다시 팽팡히 손가락에 감고 물에 한번 적셨다가 구두코부터 원을 그리며 서서히 닦아나갔다. 손길을 따라 약을 먹어 흐릿하던 구두가 반짝이며 광이 나기 시작했다. 구두 옆면과 뒤축, 구두 굽까지 꼼꼼하게 문질렀다. 광은 정직해서 손질이 가면 갈수록 더 투명한 빛을 발산했다. 광에도 푹푹이 있었다. 너무 번쩍거리면 어딘지 가벼워보였고, 너무 무거우면 빛이 나지 않았다. 그 중간 즈음,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너무 무디지도 않은 그 중간 즈음, 딱 그 중간이 좋았다. 그 때쯤이면 내 손길이 멈췄다. 그 중간 어디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란 어려웠다. 그건 순전히 그간의 미립으로 얻어진 광이었고, 그래야만 광이 은은하고 오래갔다. 그리고 경박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젊은이의 발 앞에 다 닦은 구두를 가지런히 놓고 구두주걱을 내주었다. 젊은이는 눈이 부시다는 듯 실눈을 뜨며 호들갑을 떨었다.

“와우! 광이 정말 판타스틱 한데요!”

젊은이는 구두를 신고 이리저리 살펴다가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보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의 계획은 구두 타운을 짓는 겁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는 라디오 성우를 해도 손색 없을 만큼 기쁘었다. 가지런한 차와 반듯한 이목구비는 텔레비전에 나온 아이돌가수를 보는 듯했다.

“이게 그 설계도입니다. 1층엔 구두카페를 열고 앞 쪽에 현대식으로 지은 구두방을 여러 개 만들 겁니다. 한쪽 공간에는 사장님의 흉상을 세워 그 정신을 기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에 나는 젊은이의 얼굴을 뺨히 쳐다보며 물었다.

“구두방이 타운이 되려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거리를 벗어나겠다는 건가?”

“벗어나다니요? 여기는 사장님의 흔이 뵈인 곳인데 벗어나면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는 궁금하다는 듯이 고개를 치켜들면서 젊은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바로 저기, 저 옆 건물을 사서 1층에 구두카페와 현대식 구두방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할 계획입니다. 사장님의 이 구두방은 이대로 보존해서 전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두카페에서는 구두를 닦은 사람들에게 음료를 50% 할

인한 가격으로 서비스할 겁니다.”

젊은이의 어투가 자기에 넘쳤다.

“구두방을 보존한다? 구두는 자네가 직접 닦으려나?”

미세하게 움직이는 얼굴 근육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나는 그를 찬찬히 바라봤다. 젊은이는 내 시선을 당당히 받아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총괄 경영을 하고, 구두를 잘 닦는 사람을 공개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거리가 옛날에는 변화가였지만 관광서와 금융사가 다 이전하면서 지금은 구도심이 되어 버렸네. 쇠퇴하고 있다는 말이지. 구두타운을 현대식으로 짓고 사람을 여러 명 채용하면 수지가 맞겠는가? 그리고 요즘 구두를 닦을만한 사람을 여러 명 구할 수 있을까?”

“단순히 구두만 닦는 곳이 아니고, 관광 명소로 만들 겁니다. 구두방이 구두타운이 되는 역사를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로워 하겠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아무리 작은 구두방에서도 성

는 날 불굴 구두를 찾으러 올까봐 계속 보관하던 터였다.

신는 사람의 습성대로 구두는 낡아가고 변형된다. 그러기에 구두는 사람을 닮는다. 이 구두는 노신사를 닮아 낡아도 정갈하고 말끔했다.

“이 구두가 어떤가. 누가 신었을 것 같은가?”

젊은이는 갑작스런 나의 질문에 난감한 표정으로 한참동안 구두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대답했다.

“이 구두에 대한 답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이신지?”

“허허! 둘 다일세.”

젊은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다시 자신감에 넘치는 어투로 얘기를 계속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두타운은 사장님 이름을 딴 재단법인이 될 것입니다. 노벨상이라고 사장님도 들어보셨죠. 남은 지금은 재단법인에 출연해서 노벨상처럼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노벨상처럼 받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인 그런 상을 만들어 사장님의 성공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허허허! 노벨상까지. 너무 과한 말일세.”

노벨상을 들먹이는 젊은이의 상찬에 나는 멍쩍한 표정을 지었다. 젊은이가 다시 노신사의 구두를 집어 들고 한 짝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시 제 자리로 내려놓았다.

“이 구두는 걸은 말쑥한데, 너무 오래되어 신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시용이 아니라면 새 구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새 구두가 필요해 보인다? 헌데 말일세, 어떤 사람들은 새 구두는 발이 아프다며 일부러 헌 구두만 골라 신는 사람도 있네.”

“그래도 이 구두는 너무 낡았습니다. 새 구두가 잠깐은 발이 아플지 몰라도 금방 길이 들고, 시대에 맞는 디자인과 빛깔로 교체되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런 구두를 신고 나갔다가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뵈합니다.”

나는 일단 이 젊은이를 최종후보자로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그녀가 다행이었다. 계획이 좀 허망해 보이기도 하지만 돈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그런데 합격자는 언제 발표하실 건가요?”

“허허, 급하기는, 일단 돌아가서 기다리게.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내 조만간 자네 구두를 한 번 더 닦아주겠네.”

젊은이의 안색이 금방 어둡게 변했다. 구두방을 나가다가 고개를 돌려, 구두미용비를 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구두미용비라는 말이 신선하게 들렸다.

“요즘 대기업에선 면접비를 준다고 하던데 면접비라고 생각하게나. 허허”

그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를 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스물다섯 명이 면접을 치렀다. 연령층도 다양했다. 40억 원의 잔고가 찍힌 통장을 내걸고 구두방의 후계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신문에 낸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가 걸려오다가 신문에 기사가 나가자 면접자가 몰려들었다.

후계자 면접과는 별개로 40억 원을 어떻게 벌

어다가며 한 재벌회사가 후계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비상장회사를 상장하여 상속세 재원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또 다른 재벌회사에서는 형제간 후계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뒤를 이었다. 그런 뉴스가 들릴 때마다 기다리는 손님들의 입에서 상소리가 났다. 며칠 후 신문에는 재벌그룹의 후계싸움을 분석한 기사 사이로 조그맣게 내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이색 후계자 공개 모집-50년 구두닦이, 외길로 번 돈 40억 원 어떻게 쓸 것인지 면접!”

“이거 사장님 이야기 맞지요?”

신문의 기사를 가리키며 한 손님이 추궁하듯 말했다. 나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건설적으로 신문을 훑어보고는 당던 구두를 계속 닦았다.

“이야. 알고 보니 사장님 엄청난 부자시네. 40억이러니. 갑자기 땅이 솟구칠 일일세.”

손님은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의 다음 구절을 소리 내어 읽었다. 나오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렸다. 활자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그 이야기들은 부풀려지고 왜곡되는 데 이상 내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저 나는 오로지, 이 구두방을 물려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내가 처음부터 후계자를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 겨울이 봄으로 바뀌면서 심한 몸살감기가 찾아왔다. 수시로 열기와 한기가 갈마들더니 종내는 기력이 달려서 도저히 구두를 닦을 수 없었다.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구두방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3월로 접어들어 먼 거리는 아직 신선하고도 쌀쌀했다. 51년간 사소한 손때 묻은 열쇠로 구두방의 문을 잠그고 허리를 드는데 선풍한 바람줄기가 바짓단을 타고 속 들어왔다. 한기가 들었다.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구두방 앞 화장품대리점 여사장이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깬 것을 보고 여사장이 두 손으로 내 왼손을 덥혀 잡더니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어머나 아저씨 살아났네요.”

여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향수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암전된 세상처럼 잠깐 정신을 놓쳤다 차린 나에게 그 향수냄새는 다른 때 같지 않게 생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그 향을 따라 고개가 돌아가기까지 했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급하게 내가 보호자라고 하긴 했지만, 아휴. 생각만해도 가슴이 다 찢어라네요.”

그 소리가 마치 내가 행여 깨어나지 못하면 그 이후의 일까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적이 부담스러웠다는 고백으로 들렸다. 왼손은 여전히 여사장의 두 손에 잡혀있었다. 생각보다 손이 억했다. 억했지만 따뜻했고, 억센 만큼 또 든든했다.

“그러게. 일밖에 모르시더니. 내 이빨 줄 알았어요. 살아나신 것이 기적이러니까요”

살아났다는 말이 그처럼 생소하게 들린 적이 없었다. 웬지 그렇게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여사장의 말이 서운하게도 들렸다. 안도감과 걱정이 교차된 목소리였지만 내겐 마치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났다는 편지처럼 들려나도 모르게 통을 놓고 말았다.

“내가 언제 죽었나?”

아차, 싶어 여사장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가 행여 들었을까봐 민망하고 미안했다. 다행히 목소리가 크지 않아 그녀는 듣지 못한 듯 했다. 내 안에서 공명하다가 사그라지는 목소리에 나는 죽음이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그것은 어느 날 조용히 내게 다가와 속삭일 것만 같았다. 그만 이제 가자고... 그렇게 가버리고 나면 구두방만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모든 건물들이 사라지고 거리에 구두방만 홀로 남아있는 모습이 환상처럼 떠올랐다. 사각형 컨테이너 구두방은 이내 하늘로 동등 떠올랐다. 구두방 안에는 수의를 입은 젊은 내가 눈을 감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생각을 떨쳐 내리고 고개를 흔들었다. 알 수 없는 조급증이 일었다.

그 조급증은 처음 구두통을 짊어졌던 어린 시절로 나를 데려갔다. 그 전의 기억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보려 해도 사라진 기억들을 되살릴 수 없었고, 나는 주사위 게임의 주사위처럼 어느 거리에 던져져 있었다.

